2020

두산연강예술상

DOOSAN

2020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 초대회장 연강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두산연강예술상이 어느덧 11번째 시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초대회장님의
뜻을 이어 젊은 예술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산의 오랜 철학이 담긴
두산연강예술상을 수상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0년 우리 모두는 유례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예술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분들께
이번 수상이 위로와 응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DOOSAN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박용현

제정의 뜻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 • 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두산의 의지와 생각을 담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후보자 자격

공연 • 미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가

선정과정

심사위원 선정 → 후보 추천 및 심사 → 수상자 확정

상금 및 부상

공연부문

수상자 1명
상금 3천만 원
신작 공연 제작비 지원 (2022년 하반기)

미술부문

수상자 1명
상금 3천만 원
두산갤러리 서울 전시 지원 (2021년 하반기)

2020 제11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공연부문 **윤혜숙**

심사위원 김미도 (연극평론가)
윤한솔 (연출가)
이경미 (연극평론가)

미술부문 **김경태**

심사위원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김지연 (d/p 디렉터)
김해주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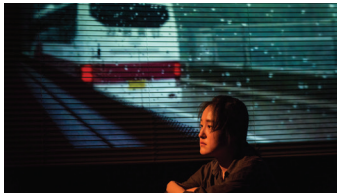
윤혜숙

연극연출가
래빗홀씨어터 대표
혜화동1번지 7기 동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협동과정 공연예술학과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심리학과 졸업

경력

2020 〈마른대지〉,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2019 〈숨그네〉, 〈보팔, Bhopal(1984~)〉
2018 〈아리아 다 카포 Aria da capo〉, 〈마른대지〉,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2017 〈터무늬 있는 연극 X 인천〉, 〈무언극 이불〉, 〈후시기나 포켓또〉
2016 〈15분〉, 〈작은문공장〉, 〈오레스테이아〉

2020 〈마른대지〉



2016 〈15분〉

2016 〈오레스테이아〉

2018 〈아리아 다 카포 Aria da capo〉

2018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2019 〈보팔, Bhopal(1984~)〉

2019 〈숨그네〉

공연부문 심사평

두산연강예술상 심사는 참 어렵다. 심사위원들은 만 40세 이하의 연극인들 중에서 보석 같은 존재를 찾아내려 애쓴다. 몇 년 동안 수상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혜성처럼 나타난 존재가 있는가 하면 꾸준한 작업을 통해 믿음을 주는 이도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심사위원 구성원이 동일했지만 작년에 거론된 후보들이 다시 언급되기보다는 새로운 후보들이 대거 등장했다. 수상 후보자들의 새로운 이름을 보며, 한동안 주목을 끌던 예술가가 작업을 잘 이어가지 못하면 염려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반짝이는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어 반갑기도 하다.

심사위원들은 적어도 하나의 공통된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 지속적인 작업을 전개하는 예술가인가, 작품들의 수준이 대체로 안정적이면서 특히 최근작들이 빛을 발하는 경우, 새로운 내용과 형식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태도 등이다. 그런 지향점에 부합하는 후보들 몇몇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최종 수상자로 윤혜숙을 결정하는 데는 아주 쉽게 합의가 되었다.
우리에게 윤혜숙이라는 이름이 뇌리에 처음 각인된 것은 2015년 '팝업씨어터' 사태를 통해서다. 2015년 가을, 검열 논란이 온 연극계를 뒤흔들고 있을 때 윤혜숙은 팝업씨어터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였다. 그는 당시 검열에 저항하는 의미로 팝업씨어터 참가작이었던 〈후시기나 포켓또〉의 공연을 접었다. 윤혜숙은 어느 인터뷰에서 그때 '잃어버린 15분'은 찾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과연 그 잃어버린 시간을 아직도 못 찾았을까.

윤혜숙은 최근에 〈마른대지〉(2018, 2020), 〈보팔, Bhopal(1984~)〉(2019),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2018, 2020) 등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잘 확립해 가고 있다. 〈마른대지〉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여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치열한 심리적 갈등과 강렬한 에너지로 조화시켜 보여주었다. 혜화동1번지 7기 동인으로서 '세월호 2019 제자리'에 참여했던 〈보팔, Bhopal(1984~)〉에서는 대형 가스누출 사고의 처리 과정과 피해자들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은유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는 감염병이 창궐한 도시 속으로 목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간 두 젊은 여성을 통해 지금 여기의 코로나 시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었다. '방' 한 칸을 얻기 위해 출발한 낯선 도시로의 여정은 그들 스스로 지옥에 뛰어드는 행위였고, 감염병이 만연된 도시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윤혜숙은 배우들과 잘 소통하는 연출로 보인다. 그는 복잡한 무대세트 없이도 배우들의 에너지로 극장을 가득 채운다. 배우들의 말과 몸은 빈 무대에서도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관객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북돋운다. 윤혜숙은 관객들을 편안한 감상자로 절대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그의 연극은 때로 극장이 터져 나갈 듯한 에너지로 팽창하다가 갑자기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되어 냉철한 이성적 사유를 요구한다. 〈마른대지〉에서 낙태의 혈흔이 낭자한 바닥을 청소부가 꽤 오래 담담하게 청소하고 나가는 장면,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에서 배우의 몸이 굳어버려 한그루 나무가 되고 종국에는 바닥에 조명만으로 그의 죽음을 응시하게 하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

윤혜숙 연출은 자신의 작업에서 늘 '만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타자는 물론 자신의 정의로움과 안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놓인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 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조건들을 점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작품 속에서 펼쳐지는 사태에 대해 가능한 한 객관적 시각을 견지하려 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으로나마 공공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배려를 겸손하게 내비친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최첨단 IT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쌍방향적인 변용의 과정을 거치며 무제한 공유되는 세상이다. 도처에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모두를 이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증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장을 채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연극의 언어로 오롯이 전환하는 것은 연출의 중요한 역할이자 과제다. 윤혜숙 연출은 희곡뿐 아니라 희곡을 넘은 다양한 텍스트 안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를 찾아낸다. 그리고 여타의 연극적 수사를 가능한 한 제거하고 그 이야기의 결을 최대한 살려 극장의 무대에서 공간화 한다.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수행하는 배우의 존재, 그 힘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것, 그의 연극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경험이다.

심사위원 **김미도 윤한솔 이경미**

김경태

É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ECAL)
Master of Art Direction 졸업
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졸업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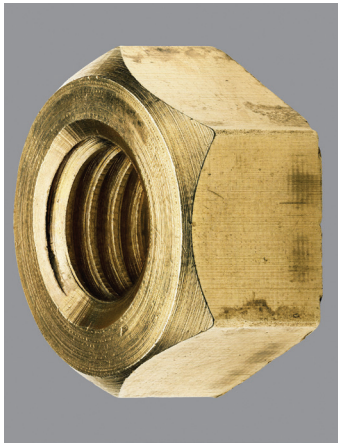
2019 ***표면으로 낙하하기,*** 휘슬, 서울, 한국

단체전

2020 ***아나모르포즈: 그릴수록 흐려지고,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WESS, 서울, 한국
2019 ***불안한 사물들,***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8 ***2018 서울사진축제: 멋진 신세계,***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스테이트 아방가르드의 유령, 베니스건축비엔날레 2018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2017 ***종이와 콘크리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한국
71EH, 취미가, 서울, 한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 No Longer Objects,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6 ***유명한 무명,*** 국제갤러리, 서울, 한국
그래픽 디자인, 2005~2015, 서울,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Texture Mapping 2019, inkjet print, 178 x 178 cm

Serial Composisions 9
2018, inkjet print, 140 x 105 cm



Brass Hex Nut M11.IMG
2016, inkjet print, 125 x 100 cm

미술부문 심사평

제11회 두산연강예술상 미술부문 심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먼저 세 명의 심사위원이 각 세 명의 작가를 추천하고, 추천된 작가 아홉 명을 후보로 두고 토론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회화, 조각,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들 모두가 현재 활동 상황이나 작업의 역량에 있어 고루 뛰어나 이 가운데 한 명을 수상자로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이 상의 수상이 작가의 향후 작업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을 고려하면서, 그간 꾸준히 집중력을 갖고 작업을 진행해 온 과정에서 작업의 점진적 발전과 탐구의 깊이를 나타내 온 작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된 김경태는 사물에 대한 집요한 관찰을 통한 사진 작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돌, 나사, 책과 같은 작은 사물 하나를 두고 그 표피를 실제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내는 이미지를 도출해 내는데, 그 선명함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면서 광학적인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를 극복한 결과다. 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피사체에 접근시키며 수백장의 사진을 찍고, 각각의 초점이 맞는 부분들을 합성하는 이 '포커스 스태킹(Focus Stacking)'의 과정을 거쳐, 사진은 사물의 세부적인 형태와 그 질감을 전달하며 본연의 물성을 나타낸다. 작가가 물체를 관찰하는 행위의 집합이기도 한 촘촘한 이미지는 심지어 촉각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김경태의 작업은 원근법적 분석 논리에서 벗어나 '본다'라는 시각예술의 기본적인 작동 조건을 전면으로 가져온다. 현재의 미술 감상이 작품 형태의 안과 밖에 연결된 수많은 정보를 읽고, 조합하고, 해석하는 총합적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김경태의 작업은 먼저 하나의 사물을 관찰하는 시선으로 감상의 방식을 집중시킨다. 사물의 각 지점이 고르게 구현되고, 또 확대된 상태의 익숙하면서도 생경한 이미지는 그간 조급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감상자의 시선을 고른 호흡으로 한곳에 머무르게 한다.
짧은 시선으로는 쉽사리 놓치게 되는 사물의 모습을 여러 순간들의 결합으로 기록하는 그의 작업은 입체가 평면으로 기록될 때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며, 또 무엇이 왜곡되고 무엇이 외면당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오랜 질문을 사진을 통해 꾸준히 다루면서 자신만의 감각에 날을 세워 집중하는 태도는 이 작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번 수상을 통해 작가가 오롯이 자신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의 작업 경력에 비해 개인전의 횟수는 많지 않은데, 수상에 이어 두산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작업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김성은 김지연 김해주**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2010년-2019년)

공연부문

2019 윤미현

2018 김정

2017 이연주

2016 구자혜

2015 이자람

2014 이경성

2013 성기웅

2012 김은성

2011 윤한솔

2010 김낙형

미술부문

2019 김주원

2018 이윤이

2017 권하윤

2016 김희천 박광수 이호인

2015 강정석 오민 유목연

2014 강동주 안정주 이윤성

2013 김민애 김영나 차재민

2012 김상돈 김지은 장지아

2011 박주연 이소정 이재이

2010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연강홀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강(蓮崗) 박두병 회장의 생가터에 지은 연강홀. 2007년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620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Space111

두산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Space111.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두산갤러리

두산갤러리는 비영리 갤러리로서 2007년 서울에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작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뉴욕 첼시에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미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큐레이터 워크샵과 미술강좌 등을 통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지원

DAC 아티스트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아트랩

공연(만 40세 이하), 미술(만 35세 이하) 분야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을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두산레지던시 뉴욕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6개월 동안 뉴욕 첼시 지역에 위치한 독립된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써온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제정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갤러리 뉴욕은 한국 최초로 뉴욕 주정부와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고 2009년 뉴욕 첼시에 설립된 비영리 갤러리로서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은 국제적 수준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미술 작가들에게 뉴욕 첼시에 있는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레지던시 입주 작가에게는 개인전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 및 미술애호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48 West 28th Street, Suite #231, New York, NY 10001

입주작가 2020 우정수 이윤이 박경률 최윤
2019 권하윤 임영주 장서영 황수연
2018 기슬기 김희천 박광수 배윤환 이호인
2017 권용주 오민 윤향로 장파 최수앙
2016 강동주 박재영 안정주 유현경 이윤성 이은실
2015 김민애 김영나 백정기 이혜인 정지현 차재민
2014 김상돈 김지은 장보윤 장지아 전소정 이완
2013 박주연 문성식 유승호 이소정 이재이 함진
2012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박세진 이지현 정희승
2011 김기라 김인배 민성식 박윤영 이동욱 이주요
2010 권오상 김인숙 백승우 성낙희 홍경택
2009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아트센터 2020

YONKANG Hall

팬레터 뮤지컬 19.11.7~2.2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5.29~8.23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9.19~11.8
HOPE :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뮤지컬 11.19~21.2.7

DOOSAN Gallery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1.15~2.15
최윤 개인전 5.6~5.30
박경률 개인전 6.10~7.11
전시기획 공모 선정작 7.22~8.19
김주원 개인전 9.16~10.21
우정수 개인전 11.18~12.23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아트랩 뉴욕 2020 1.16~2.15
우정수 개인전 3.5~3.12
박경률 개인전 9.10~10.17
최윤 개인전 11.5~12.17

DOOSAN ART CENTER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0 : 푸드 FOOD 6.1~7.27
두산아트스쿨 : 창작 워크숍 7.4~12.5
두산아트센터 투어 2.10

Space111

Doosan Art LAB
앵커 연극 1.30~2.1
양질의 단백질 연극 2.6~2.8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연극 2.13~2.15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연극 2.20~2.22

두산인문극장 2020 : 푸드 FOOD
1인용 식탁 연극 5.6~5.23
궁극의 맛 연극 6.2~6.20
식사(食事) 연극 6.30~7.18

DAC Artist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판소리 9.16~9.25
꿈이 아닌 연극 연극 10.22~10.24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오직 관객만을 위한 두산아트 센터 스트리밍서비스공연 연극 11.10~11.28

공동기획
문밖에서 연극 7.25~8.1
마른대지 연극 8.8~8.23
크리스천스 연극 12.5~12.26

두산아트센터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두산밥캣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
20

두산연강예술상